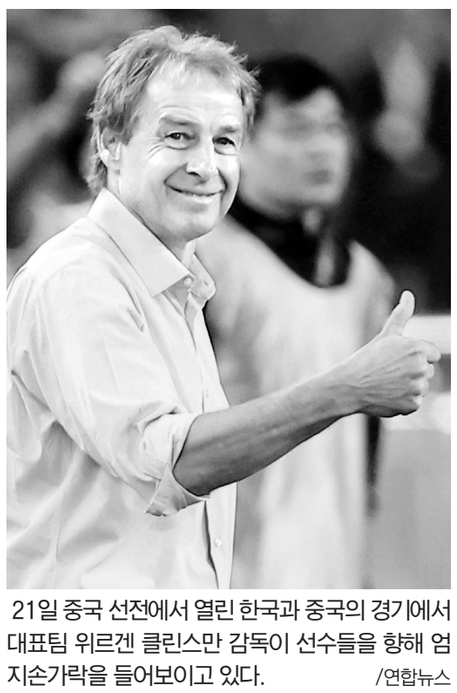
5연승 19골 …클린스만호 공격 축구 빛 보나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A매치 일정 마무리

5경기 무승 뒤 5연승으로 반전
연승 상대 대부분이 약팀
'전술 부재' 해결 여부 미지수 속
좋은 흐름 타며 사기 충만 긍정적
내년 아시안컵 64년만의 우승 도전

클린스만호가 21일 중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 원정 경기를 끝으로 올해 A매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데뷔 첫 해' 경기 일정도 끝났다.

지난 2월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은 콜롬비아(2-2 무), 우루과이(1-2 패)를 상대로 치른 3월 A매치부터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평가전, 월드컵 예선 등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의 성적을 냈다.

시작은 '가시밭길'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데뷔 5경기에서 무승에 그치며, 대한축구협회가 1992년 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이후 '최다 경기 무승' 감독이 되는 불명예를 썼다.

클린스만 감독이 과거 독일, 미국 대표팀을 지휘하던 시절 단점으로 지목되던 '전술 능력 부족' 문제가 한국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 머물며 '원격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크게 일었다.

하지만 9월 두 번째 경기인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10월 튀니지(4-0 승), 베트남(6-0 승)과 평가전, 그리고 11월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5-0 승)에서 대량 득점하며 연승을 이어갔다.

2차 예선의 최대 고비로 여겨지던 중국전에서도 완벽한 경기력을 펼쳐 보인 끝에 3-0 쾌승을 거뒀다.

클린스만호는 이 다섯 경기에서 19골을 몰아넣고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화끈하면서도 단단한 축구를 구사했다.

◇크게 이기니 기분은 좋은데…정말 잘하는 거 맞나 = 하지만 튀니지를 제외하면 상대가 워낙 약팀이라 클린스만호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만큼, '합격점'을 주기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술 부재, 체계 없는 막무가내 공격 등 단점이 보완됐는지 확인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다.

클린스만호는 내년 1월 2024 카타르 아시안컵 토너먼트에서는 아시아의 강팀들을 상대해야 한다.

부임 후 첫 다섯 경기를 치르며 성적 부진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세대교체'도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린스만 체제에서 A대표팀에 데뷔해 꾸준히 경기를 뛴 선수는 이순민(광주FC), 박용우(알아인) 정도에 불과하다.

가장 세대교체가 시급하다는 우려를 사는 좌우 풀백 라인업은 설영우(울산) 한 명이 수혈되는 데 그쳤다.

◇아시안컵 앞두고 5연승 19골 무실점…"고무적인 상승세" = 다만, 3년 뒤 월드컵까지 길게 보지 않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아시안컵만 놓고 보면, 올해 클린스만호가 거둔 성과가 기대 이하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어찌 됐건, 큰 대회를 앞두고 5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4경기 연속 다득점 승리의 좋은 흐름을 타 선수들의 사기가 크게 오른 것은 그 자체로 큰 소득이다.

대표팀은 내년 1월 10일 개막하는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1월 초 다시 소집돼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을 시작한다.

앞서 올해 12월 말에는 K리거 중심으로 소집훈련을 할 계획이다.

대표팀은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A매치를 치르며 손발을 잘 맞춰왔다. 두 달 공백 뒤 아시안컵에서도 지금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정승현이 헤더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은 뒤 어시스트를 한 손흥민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2골 1도움 맹활약… '공한증' 계속 심는다

정승현 A매치 데뷔골로 '쐐기'
월드컵 2차 예선 중국 3-0 완파

클린스만호가 손흥민(토트넘)의 멀티골을 앞세워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의 최대 고비인 중국 원정에서 3점 차 완승을 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1일 중국 광둥성의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전반전에 터진 손흥민의 2골을 앞세워 3-0 승리를 거뒀다.

싱가포르와 1차전(5-0 승)에 이어 2연승을 거둔 한국은 C조 1위를 유지하며 3차 예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가능성을 키웠다.

이날 싱가포르에 2-1로 승리한 태국이 중국을 제치고 조 2위(승점 3·골 득실 0)로 올라섰고, 중국은 3위(승점 3·골 득실 -1)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중국과 상대 전적에서 최근 4연승을 포함해 22승 13무 2패로 앞서나갔다. 중국은 '공한증'을 떨쳐내지 못했다.

클린스만호는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부터 파죽의 5연승을 기록했다. 연승 행진을 벌인 5경기에서 클린스만호는 19골을 넣고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

2차 예선 상대국 중 가장 강하며, 워낙 거칠게 플레이하는 중국을 상대로 원정에서 심각한 부상자 없이 승리를 거둔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신바람을 내며 2023년 A매치 일정을 마무리한 대표팀은 내년 1월 초 다시 소집돼 같은 달 12일 개막하는 2024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에 들어간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이 자랑하는 '빅리거' 공격 트리오인 손흥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지난 싱가포르전에 이어 또 한 번 선발로 총출동시켰다.

최전방과 2선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 손흥민은 전반 11분 만에 페널티킥 골을 기록했다. 앞서 중국 수비수 주천제가 페널티지역에서 황희찬의 발을 거는 파울로 페널티킥을 한국에 헌납했다.

손흥민은 전반 45분 두 번째 골도 책임졌다.

오른쪽에서 이강인이 올린 코너킥을 손흥민이 가까운 쪽 골대에서 머리로 돌려놓은 것이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이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의 도움으로 A매치 득점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강인은 A매치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손흥민은 A매치 41호 골을 기록했다.

한국은 중국이 만회골을 넣기 위해 열을 올리던 후반 42분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올린 대각선 프리킥 크로스를 정승현이 머리로 마무리해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페퍼스 야스민(맨 왼쪽)이 지난달 15일 열린 현대건설과의 1라운드 경기에서 현대건설 이다현, 양효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AI페퍼스 안방서 '승점 사냥'

오늘 현대건설과 홈경기…야스민, 친정팀 상대 활약 주목

AI페퍼스가 현대건설을 안방으로 불러 승점 사냥에 나선다.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3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상대로 경기를 펼친다.

연패에 빠진 페퍼스가 이번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페퍼스는 지난 19일 IBK기업은행과 홈 경기에서 뒷심 부족으로 1-3 패배를 기록했다.

1세트에서 밀리던 페퍼스는 2세트에서 반전을 보이며 승부를 원점으로 가져왔다. 3세트 중반까지는 우위를 점했지만 후반 기세에 밀리면서 결국 승리를 기업은행에 내어준 페퍼스였다. 조트린지 감독은 집중력을 경기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한 것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현대건설은 쉽지 않은 상대다.

페퍼스는 지난달 15일 현대건설과 펼친 1라운드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한 바 있다. 순위에서도 차이가 난다.

페퍼스는 2승 7패 승점 5점으로 7위, 현대건설은 5승 4패 승점 17점을 기록하며 현재 3위다. 난항이 예상되는 경기인 만큼 초반 분위기 싸움이 중요하다.

지난 시즌까지 현대건설 소속이었던 야스민이 '친정'을 상대로 뜨거운 화력을 보여줄지도 기대된다. 페퍼스의 '득점 요정'으로 자리 잡은 야스민은 1라운드와 2라운드를 합해 총 9경기에서 234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선수들의 몸 상태도 신경써야하는 시점이다.

지난 19일 조 트린지 감독은 박은서에 대해 "최근에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서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연화도 앞선 경기에서 풀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컨디션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페퍼스는 이날 광주페퍼스타디움을 찾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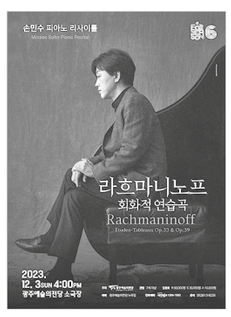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울의 봄
2관	서울의 봄
3관	30일, 아워 프렌드
4관	서울의 봄
5관	프레디의 피자가게
6관	서울의 봄, 스노우 폭스: 썰매개가 될 거야!
9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본 투 플라이
7관씨네커플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더 마블스
8관씨네커플	프레디의 피자가게, 소년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GAC 기획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3-12-03(일) 오후 4시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